산업통상부 | 보도참고자료 |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10. 19(일)

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

- 산업부 장관, 미국 조지아州 LG에너지솔루션 및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(10.18)
  - 미국 현지에서 기업 현장애로 확인 및 공장 건설 진행 상황 점검
  - 조속한 공장 건설 정상화 및 대미 첨단 투자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

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.18(토),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("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")을 방문하였다.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,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

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"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"임을 밝혔다.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, 이차전지는 한-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,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. 김 장관은 한-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,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비자 문제와 관련하여, 현재 「한-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*」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.

* 우리측: 외교부(수석대표), 산업부, 중기부 / 미측: 국무부(수석대표), 국토안보부, 상무부, 노동부

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,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,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,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.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하였다.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.

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 아울러,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여,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하였다.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박재정 (044-203-4260)
		담당자	서기관	이우진 (044-203-4266)
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박태현 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채기천 (044-203-432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